



한국의 자연입니다

조용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趙鏞涉)

소박 함과 순수함, 목가적(牧歌的)인 素田 조용섭(75) 서울대 명예교수. 趙교수 삶의 함축적인 의미는 바로 '남을 괴롭히지 말자' 인 좌우명에서 엿볼 수 있다. 불의가 아니면 누구의 청이건 뿌리치지 못한 텃(?)에 재직시절 수많은 보직을 거치면서 서울대 부총장의 명예까지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 자락은 항상 연구자 본연의 스탠스와 갈급함을 가득 채운 자연과학자이다. "왜 사느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굳이 묻지 마시게 가는 길 뒤편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나 없도록 살아가세" 늘 자연에 순응하며 삶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趙교수의 마음속 글귀이다. 구 서울대 농대 교정에서 素田을 만나보았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네, 꽤 오랜만입니다. 주위 여러분들 덕분에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년퇴임 하신지가 벌써 10년이나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로 무슨일로 소일 하시는지요?
 잊고 지냈는데, 벌써 정년한지가 10년이 됐군요. 사실 재임 40여 년간 오직 교육자로서의 외길을 걷다가 정년을 맞았으니 이제 소임을 다 했구나 하는 후련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학문의 길을 접었다고나 할까요. 그저 훨훨 날고 싶은 기분으로 그간에 못 다한 국내외 여행도 하고 때로는 등산도 하구요, 또

“ 작물보호제는 분명 농작물의 약(藥)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



시간이 있으면 집 뜰에 있는 채전(菜田)에서 각종 채소를 기르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수작(酬酢)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일과이자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식물병리학의 대가로서 40여년간 강단을 지키셨는데 외람되지만 현직을 떠나신후 학자로서 본인을 평가하신다면?

식물병리학의 대가라는 말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평가라기 보다는 재직기간을 회고한다면, 식물세균병학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여 전국으로 전파시킨 것과, 스승 보다 훌륭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어 전국의 각 대학 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 당당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 또 정년을 기념하여 여러 제자들과 함께 저술한 식물세균병학 교과서를 한권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 조그마한 보람이라 여겨집니다.

서울대학교 재임시 학생처장, 농과대학장, 부총장 등 남다른 이력을 지니셨는데 특별히 강조하셨던 교육지침은?

남들은 저를 소위 자연과학자라고 부르겠지만, 실제 저의 초지일관한 교육지침은 전공과는 다른것이 없습니다. 항상 인성을 강조했고

먼저 인간완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저의 신념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임시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으시는 일은?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저 교육자로서의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다 보니 주위에서 보직에 적합한 자로 평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본연의 연구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을 따름입니다.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 품목관리소위원장, 작물보호협회 농약시험전문위원회 살균제 분과 위원장 등 관련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오다 보니 저를 과분하게 평가한 나머지 주위의 분들이 이런 저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어진 일들이 저의 전공과 관련 깊은 일들이었고,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회시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앞세우는 일부 위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농약산업의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보시며 재입사와 퇴
임후의 농약을 보는 시각은?

농약산업의 수준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
지 농약이 독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
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농약은 분명 농작물의
약(藥)이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이
를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
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1. 자연인으로 돌아온 서울대 명예교수 13인의
토요산행 모임인 청람회(靑嵐會) 회원들과,
2. 부총장 퇴임후 본연의 연구자로 돌아와
2년동안 연구에만 매진.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은?

먼저 지구 온난화가 앞으로 작물 생산에 어
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물이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이어서 그때
그때 점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
겠지요. 당장 서둘러 성급히 대응방안을 수립
하다 보면 자칫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요.

작물보호를 생각한다면 지구온난화가 병해충
과 잡초에 대한 어떤 변위를 초래할 것인가를
먼저 연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먹거리 부족 등으로 작물보호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재 농약산업은 여러 반농약농법 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농약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이비 단
체들의 비과학적인 여론조성으로 만들어지는
농법이 반농약 농법 아닐까요? 진보된 농약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심도 있게 홍보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소위

유기농이라 하여 무농
약 재배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작
물생산에 진정 도움이
될 것인가를 검토해
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후학들을 위해 특별히 당
부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오늘날에는 농학이라는 학문이 소멸되고 있
다는 느낌이 듭니다. 첨단과학이란 해결되지
않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현안을 모르고 시작하는 첨단과학은 쓸모없는
학문으로 끝맺음 한다는 것이 소신이며 지금
까지 제자 후배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Y